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11. 추론의 유형

1. 유비추론

① 유비추리(類比推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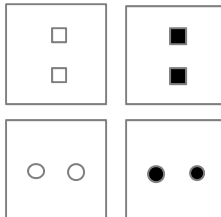
- *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다른 유사한 점을 찾아내는 추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는 잣대(기준)가 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어야 한다.
- * 유비 추리는 가설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례로부터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쉽게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 * 이미 알고 있는 사례와 이제 알고자 하는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유비 추리에 의해 결론을 이끌어 내면, 그것은 개연성이 거의 없고 잘못된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잘 만들어진 유비추론은 쌍방적 관계를 갖는다. 즉, 수평과 수직 어느 방향으로 진술하든 유비관계가 성립한다.

예)

해 → 달

낮 → 밤

- 해와 달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가? 수평
- 해와 낮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이 관계인가? 달과 밤



- 수평방향에서 비교되는 차원은 무엇인가? 색
- 이 관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해와 달의 관계는 낮과 밤의 관계와 같다.

② 비유와 유추

㉠ 비유

- * 비유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비슷한 속성의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 *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예)

너의 눈빛이 반짝인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땐

- 너의 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구나. - 직유법
- 너의 눈빛은 별이야... 저 하늘의 별... - 은유법

㉞ 유추

- * 유추는 유비추론의 준말로써 추론 즉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과정의 일종입니다.
- * 두 대상 간에 몇 가지 유사성이 있을 때, 그 유사성을 근거로, 두 대상의 다른 속성들마저 서로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이다.
- *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
- *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이나 사물이 몇 가지 성질들을 공유할 때, 이것에 의해 한쪽에서 볼 수 있는 성질을 다른 쪽도 역시 갖고 있으리라고 추리하는 방법
- * 비교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의 공통점을 직접 견주어보는 것이지만 유추는 비슷한 속성이나 행위를 가진 다른 범주의 사물을 통하여 주어진 대상(주제)을 추리해가는 것입니다.

2. 집단적 유비추론

① 집단 유비추론

- * 단일유비추론과 동일하나 보다 복잡하고 많은 정보들이 통합되어 있다.
- * 쌍방의 관계가 수직, 수평적인 관계로 표현되는데 단일 비교가 아닌 3단, 4단의 차원으로 비교된다.
- * 질문이 복잡하게 전개 되어 있거나 제시문이 혼란하게 나열된듯싶을 때 집단 유비추론의 사고 과정을 동원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을 발견하여 유추하는 것이 문제 해결력이 된다.

② 단어의 갈래

㉟ 일반어와 특수어

- * 개념: 단어에도 상위 개념의 단어와 하위 개념의 단어가 있다.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보다 상위 개념의 단어를 일반어라 하고, 하위 개념의 단어를 특수어라 한다.
예) 예술은 우리 인간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인생을 담지 않은 문학이 있는가? 음악도 미술도, 무용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 일반적인 말(예술)을 하다가, 특수한 사례(문학, 음악, 미술, 무용)를 예시하고 있다.

* 특징 및 용도

- 구체어인 경우, 일반어보다 특수어가 더 분명한 심상(心象)을 떠올리게 한다.
예) 울타리에 꽃이 피었다. → 울타리에 나팔꽃이 피었다.
- 일반어와 특수어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예) '나무'는 '식물'에 대해서는 특수어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일반어다.

- 일반어에 수식어를 쓰면 특수어가 되어, 뜻이나 인상이 선명해진다.

예) '아이'보다는 '눈이 큰 아이'가, '폐수'보다는 '공장 폐수'가 특수어다.

- 부득이 일반어로 글을 써야 할 때도 많지만, 되도록 특수어를 써서 뜻과 인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구체어와 추상어

* 개념

- 구체어: 단어 중에는 그 의미하는 바가 사물의 모양이나 빛깔, 움직임 등을 지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시각, 청각, 촉각 등) 파악할 수 있다.

예) 하늘, 꽃, 나무, 푸르다, 둥글다, 먹다 등

- 추상어: 그 의미하는 바가 관념이나 성질 등을 지시하고 있어서 감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다.

예) 민주주의, 윤리, 사상, 기술, 예의 등

* 특징과 용도

- 구체어는 감각적인 체험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 용이하며, 추상어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의 내면을 다루는 데 효과적이다.
- 구체어는 명확하고 한정된 지시 대상을 가지며, 추상어는 쓰임에 따라 의미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 구체어는 묘사, 서사의 글에 효과적이고, 추상어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 하는 글에 많이 쓰인다.
- 구체어는 문학 작품처럼 독자의 감각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되살려 주는 글에서 많이 사용되고, 추상어는 일부 논설문이나 설명문처럼 추상적 개념을 다루는 글에 많이 사용된다.

3. 논리 놀이, 유비추론의 활용

<무인도 놀이>

① 톰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 영화를 잠시 보여줌

- 캐스트 어웨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망망대해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남자의 이야기
- 택배회사 직원인 그에게 남겨진 배달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생존의 모험시작
- 생존을 위해 그 물건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불을 지피기도 하고, 집도 만듦
- 스케이트 날은 칼도, 망치도, 심지어 총치를 뽑는 치과용 칼로 변신함

→ 이런 용도로 사용 가능했던 이유는 스케이트 날이 칼, 도끼, 치과용 수술도구와 기능적으로 같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

→ 사물의 비슷한 특징을 찾아 내는 것: 유비추론의 응용

② 조원들에게 무인도에 불시착 했음을 알림

- 무인도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가설을 세우게 함
- 추론을 통하여 빠져 나갈 방법을 모색하게 함
- 시간이 걸린다면 생존의 문제로 돌입하게 함
 -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생존을 하여야 하나.
 - “우선 임시 가옥을 만들어야 해.”
 - “아니야. 먹는 게 중요하니까 부엌을 만들고 불을 지펴야 해.”
- 의견이 분분할 때 토의를 거쳐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선정하게 함
- 가옥을 만들려면 망치가 필요한데 망치를 대신할 물건에 무엇이 있을 지 3가지를 찾아보게 함
- 불을 지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함
-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이 있으면 좋을 텐데, 천막을 대신할 유용한 물건이 교실에서 찾으면 뭐가 있을지 찾아보게 함

③ 조원들에게 거쳐할 임시가옥을 상상하게 함

- 주어진 재료로 가상의 집들을 만들어 보도록 권유함
 - 두꺼운 도화지, 풀, 가위, 색종이, 색연필, 등의 재료를 줌
 - 각 조마다 재료에 중요한 재료를 하나씩 빼고 지급함
- 자신의 조에 필요한 재료가 없을 때 과연 조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료를 구해 올 수도 있고, 다른 조와 협상하여 재료를 얻을 수도 있음
 -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하는 방법임

♣ 심화 학습

<유비(類比)논증과 오류>

김준성 서울대 교수 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강화하는 논증은 여러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상식처럼 알려진 단순한 논증을 보자. ‘모든 한국인은 인간이다’, ‘어떤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어떤 한국인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인의 유한한 삶을 입증하기 위해 앞선 두 가지 주장을 입증의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이미 타당한 논증이고 소개된 주장들이 모두 참이면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례와 같은 형식을 가진 논증이지만 꼼꼼히 검토하면 잘못된 논증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논리적인 오류를 범한 논증이다. 이미 소개된 거짓 딜레마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가 그런 논증의 사례이다. 보다 자주 발견되고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다. 다음 논증을 보자.

갑돌이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운동을 좋아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갑돌이의 다른 가족들은 또한 예술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갑돌이도 예술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 논증을 유비(類比)논증으로 부른다. 첫 번째 주장에 따르면 갑돌이와 다른 가족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두 번째 주장은 갑돌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가진 공통점을 말한다. 이들 주장으로부터 갑돌이도 다른 가족들이 가진 공통점을 가졌을 것으로 추론(推論)하였다. 이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추론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갑돌이와 다른 가족이 가진 공통점이 처음에 소개된 세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 또는 그 이상이면 그 추론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통점이 단지 세 가지에 불과하면 위 논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위 사례에서 갑돌이를 한국인으로 가정하고 가족의 자리에 한국인을 대치하여 생각해 보자. 이 새로운 논증에서 갑돌이와 다른 한국인이 열 가지 공통점을 가져도 그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인은 매우 큰 집단이므로 보다 많은 공통점을 생각해야 한다. 유비논증은 추론을 하거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효과적인 논증이다. 그러나 입증의 대상과 그 대상이 속한 집단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졌는지, 또는 그 집단이 얼마나 크거나 작은지에 따라서 유비논증은 효과적인 입증이 되거나 오류가 될 수 있다.